큰스님 수행한담

좋은세상 만듭니다”

◇1970년 신촌 봉원사 24세 주지 최영월스님 취임식에서 대중과 기념촬영. 앞에서 두번째 줄 맨 왼쪽이 금암스님.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일은 이생의 우리들 과제입니다 이 숙제 못 풀면 다음생의 짐”

그러면 원하는 바대로 됩니다. 절대로 육바라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흔히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그저 착하라고만 강조합니다. 원인이나 결과 없이 늘어만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달라요. 왜 착해야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本) 말(末)을 확실히 설해 놓으셨지요.

부처님은 〈본말구경법〉을 통해 수기를 하셨습니다. 〈법화경〉 10여시 가운데도 밝혀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제자인 우리들은 확실히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충청권이 의외로 불교세가 강하지 못합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곳 대전에서만 줄곧 살면서 지역포교에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십수년전 서대전에서 ‘부지런하기 1등’ ‘말잘하기 1등’ ‘힘세기 1등’의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때 ‘부지런쟁이’로 모두들 나를 추겨세우는 겁니다. 당시 나는 우리절 뒤 7천평 땅에 과수원을 하면서 수행과 농사를 둘 아니게 생활했습니다. 새벽 예불 마치면 늦은 시간까지 과수재배에 몰입하는 나를 두고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린 것이지요. 결국 그 과수원에서 생긴 수입은 절불사에 큰 보탬이 됐고 특히 인재불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상좌들이 저마다 제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가르쳤고 깊이를 더하고자 인도 유학도 보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불교를 위한 재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출가자나 재가자나 부처님 제자라면 교학까지는 안가더라도 기본 가르침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불공 수행도 모두 바른 교리체계의 터전위에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경전을 근본으로 배워야 합니다. 경전을 의지하라는 것은 근본을 모르면 미신과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복에서 작복으로 복전의 참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절마다 법회를 적어도 1달에 1번 이상은 열어야 해요. 주지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면 법사를 초청해서라도 법회를 많이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때 벗겨내야 불성 드러나요”

“부지런하면 건강도 복도 절로 얻어요”

이거 다 오랜동안 부처님 시중들면서 생각해 얻은 결론입니다.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출가 인연터가 교학의 전당이랄 수 있는 최초의 강원인 동학사였고 당시 쟁쟁한 강백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15살에 한문을 가르쳐 출세시키려는 부모님 뜻에따라 동학사 강원에 가게 됐지요. 동학사 강원은 일제때부터 이미 만우스님이 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을 뜨게해 무지함을 벗겨주시려고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열고 한문과 불경을 가르쳐 학당이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후 경허 동은 만우 백초월 윤운문 김동수 남무불 스님 등 쟁쟁한 강백들이 강주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도 다른 일반인들과 함께 스님도 아니면서 끼어서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다니다보니 자연히 스님들 생활이 눈에 들어왔고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라구요. 가끔 스님들 법문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불공드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설법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뜻도 모르면서 그저 환희심이 생깁디다. 다 인연지사일 것인데, 결국은 중노릇을 작정하게 됐고 열여섯살에 득도를 했습니다.

만우스님의 상좌이신 퇴운스님의 맏상좌 도광스님을 은사로 동학사에서 머리를 깎고 4년동안 강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초월 운문 동수 무불스님 등 네분께 직접 수학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소임을 살다보니 전공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나머지 공부를 위해 은사스님의 배려로 전라남북도 연합강원식으로 운영되는 전주 위봉사로 가 2년동안 공부해 마쳤습니다.

수행하면서 주위의 칭찬을 받은 일은 은사스님의 은사이신 퇴운 노스님의 간병을 9개월 동안 해드리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서 효상좌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기간을 스스로 혹독한 수행과정으로 공부삼았습니다. 계행 인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비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노스님의 병환이 깊어 9개월 꼬박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겨 드리고 처소를 정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장만까지 참으로 용맹정진하듯 최선을 다했었어요.

중이 나이를 따지는 일은 어색한 일이지만, 불자들이 내나이를 다 보지 않습니다. 내나이를 알고나면 꼭 물어요. 어떻게 건강을 잘 유지하느냐구 말입니다. 중이 수행하는 일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꼬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부지런함이 건강에 묘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나는 달리 비법을 쓰지 않아요. 다른 스님네들처럼 새벽예불 꼭 지키고 관음주력을 열심히 합니다. 종합하면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대로 따르고 행동하되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함이 행복도 가져다 주고 복짓는 일로 안내를 합니다.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생명을 구했던 체험 때문입니다. 동학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일을 보러 나가는데 초발심이 발했던 당시라 속으로는 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한번은 좁고 가파른 비탈에서 고속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가속이 붙으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리없이 마냥 “관세음보살”만 찾았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것 같아요. 그런데 3m 정도높이 낭떠러지 끝에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관세음보살님 덕에 살아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관음주력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다 첨단시대다 해서 세상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사는데 편리해져 좋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진정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번개같이 발전하는것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정신이 붕 떴거든요. 공중이 말(言)들로 채워져 벙벙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과는 역행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음의 근본을 올곧이 드러내는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살기 편리하고 늘어난 물질만큼 떠있는 그것을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지혜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면 살길이 없습니다. 부처님법이 인류가 살아나갈 대안이라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인류의 근본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가르침은 “진실불허(眞實不虛)”한 것으로 가설이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무궁한 생명의 근본을 밝히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허황되다고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귀기울이면 진실이 보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미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만이 이생의 우리들 과제입니다. 이생에서 숙제를 다 풀어야지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음생으로 갑니다. 모두들 다 풀고 갑시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전숙희
〈터사랑 대표〉

청년회 참선부장하다 학원강사 사직
불교유적 답사기행 이끌며 환희심

나는 불교를 접하고 부터 답사기행을 꾸려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있는 국토문화순례 터사랑의 답사기행도 불교와의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발심시절 불교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그저 집에서 불교서적이나 읽으면서 소극적인 불교생활을 하던 나는 종교단체에서 소속감을 갖고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10여년전 우연한 기회에 대원사 현장스님을 만나 스님의 권유로 법련사 불일청년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늦깎이 청년불자였던 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법련사 청년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소속없이 교리공부를 했다. 그러다가 참선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매월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철야정진을 하고, 3박4일 수련회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자연스럽게 청년회 참선부장까지 맡게 됐다. 참선부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고 보니 1년동안 절에서 하는 행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가하게 되었고, 불자로서의 사명감도 생겼다.

그렇게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적인 내 관심을 새롭게 표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문화유적지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답사기행을 이끌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학원강사직도 그만두고 불일청년회 후배들과 힘을 모아 94년 9월 제1회 답사기행을 시작했다.

터사랑을 열기 위해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했었는데 불일청년회 지도법사이셨던 지묵스님이 그려주신 우리나라 지도모양의 마크는 터사랑을 대표하는 마크로 내 명함에 새겨져 있다. 처음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언을 구했던 내게 스님은 “전국 방방곡곡의 숨어있는 불교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불교제일의 답사기행단체가 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우리문화의 정신적인 토양인 불교문화와 사찰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역사와 경관도 함께 살피는 것으로 답사기행을 구성하기로 후배들과 마음을 모으고, 매년 각 지역과 계절의 현황에 맞게 답사일정을 계획했다.

답사를 시작했을때 나는 항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답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당에 들어가 반드시 108배를 했다. 그때 그 마음은 내가 처음 부처님 앞에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 그 마음과 꼭 같았다. 매번 108배를 하면서 답사기행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책임감도 늘었다.

답사기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 뿌듯할때는 새벽 산사에 도착해 불전사물의 장엄한 소리를 들으며, 새벽 예불에 참여할 때다. 불전사물을 치는 이유와 그 속에 담긴 뜻을 차근 차근 설명하며,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 소리에 감동할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또 일반인들이 절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공양은 절에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끔 절밥이 맛이 없다고 투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말한다. “이 밥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스님들의 법문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즘은 새로운 답사코스를 찾고 있는 중이다. 많은 답사기행 단체 가운데서 모범이 될만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최대의 목표다. 앞으로도 우리 불교문화를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답사기행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것이다.

’99 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작법 및 예경의식 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 발전 시키고저 하오니 뜻 있는 스님, 포교사 및 불자님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 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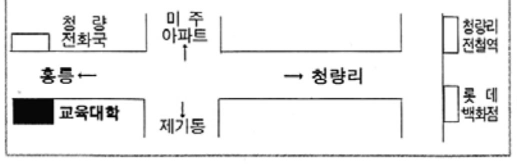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 접수일자 : 1999년 1월 27일~3월 7일
▶ 개 강 : 1999년 3월 8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